

익산시 안전행정국, 전국체전 준비 '구슬땀'

'안전·친절' 최우선 안전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

오는 10월 12일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개막까지 40여일이 남은 가운데 익산시안전행정국 직원들이 손님맞이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친년순례 익산에서 하나되는 전국체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안전행정국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점검하며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분주하다.

익산시는 자매(우호) 교류 중인 국내·외 자매도시 중 7개 도시의 대표단을 전국체전 개막식에 초청하여 손

님으로 맞이할 계획이다. 국외도시로는 미국 컬버시, 중국 진강시, 일본 분고노시, 일본 토타바야시시 대표단 총 25명 정도의 방문이 예상되고 있으며 국내도시로는 서울 강북구, 서울 광진구, 경북 경주시 대표단 10여명이 방문할 예정이다. 자매도시 대표단 맞이와 위해 부시장을 중심으로 각 국·소장이 도시별 영접단장이 되어 28명의 영접단을 구성하고 각 도시마다 빈틈없이 영접할 계획이다.

특히 익산시는 이번 체전에서 '웃는

얼굴에는 침을 못 뱉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친절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전국체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7년 5월, 익산시청운동 선포식을 통해 익산시청운동추진협의회를 발족해 지역 84개 기관·단체와 함께 전국체전 홍보, 시민의식 선진화 캠페인, 클린 익산(Clean-Iksan)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전국체전 기간 중 안전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실시간으로 경기장 상황을 확인하고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개막식과 폐막식 당일에는 종합운동장 내에 인력

을 배치하여 선수단과 참가단의 안전·질서 유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지대의 위험 요소를 잡식 시켰으며 테러사태에 대비한 종합훈련 실시로 안전에 있어 완벽한 대비가 되도록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행정국 직원들은 "소망은 하나이다. 전국체전에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익산시민들, 공무원들 참 친절하고 배려있었어 다시 한번 익산을 방문했어'라는 좋은 기억을 심어주기 위해 안전행정국 직원들은 오늘도 달린다"고 입을 모았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 팔봉동 일부 주민들 팔봉장 자연장 조성사업 반발

시, 자연장 묘지 추가로 증설 계획 주민들 "그동안 해왔던 약속과 달라" 반발

익산시가 추진중인 팔봉공원 자연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 지역주민들은 "사전 의견수렴과정이 부족했다"며 "전북도청 등 상급기관을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기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는 팔봉공원내 안치위가 현재 4139위로 올해 말이면 만장인 4341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연장 묘지 추가 증설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심의과정을 거쳐 현재 공사착공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중이다.

시는 국비와 지방비 8억5000만원을 투입해 팔봉묘지공원 내 부대시설에

정부지 1만 1794㎡ 면적에 1만 1000여개의 자연장 묘지를 추가로 증설할 계획이다.

익산시가 이처럼 사업추진에 나서자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해왔던 약속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익산시가 더이상 화장장 증설과 신축, 묘역 확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이를 어긴 것은 주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반발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시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불가피 자연장 추가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 양해를 구하면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의료원, 경영평가 3년 연속 '가' 등급 선정

공공의료강화 등 현안 전략체계에 반영 경영성과 이어져

군산의료원(원장 김영진)은 전북도 15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상 '가' 등급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개 유형별 기관경영영진력, 정책준수, 경영효율화, 고객만족도 등 7개 분야에 대해 55개 내외 세부지표로 평가됐다.

평가결과는 공공의료강화, 내부효율화, 경영개선 및 고객만족도 제고 등 기관의 핵심현안이 전략체계에 적절히 반영해 경영성과로 이어졌고 예산관리 및 원가절감 활동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의료원은 2014년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은 전북도 15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상 '가' 등급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지역되면서 김영진 원장의 리더십으로 전직원이 똘똘뭉쳐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해 매년 흑자달성을

이루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기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0병상 운영과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28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격리병상도 확보하고 있다.

또 응급 심·뇌혈관계 환자를 위한 혈관조형술을 실시할 수 있는 엔지오그라피(Angiography)를 도입해 10월중에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진 원장은 "현재나 지역주민앞에 겸손한 군산의료원으로 거듭날 것이며 지역주민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에 더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시드림스타트, 아동인권교육 실시

군산시드림스타트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 아동 6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진행해 아동들이 차별과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고를 정립하고 자신이 가진 인권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돕고자 계획했다.

교육내용으로는 아동들이 스스로 참

여하는 활동으로 ▲인권스핀지게임 ▲차이와 차별의 이해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이해 등 전문강사의 그룹별 매칭교육을 통해 참여한 아동들이 서로 소통하고 배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황대성 어린이행복과장은 "이번 인권교육을 통해 아동들이 긍정적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아동권리를 지키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소방서, 구급차 탈취예방위한 원격 시동키 설치

익산소방서(서장 김봉춘)가 관내 구급차 탈취 예방을 위해 차량용 원격 시동키를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5월 충남 천안에서는 조울증 병력이 있는 19세 남성이 구급차를 탈취해 도주하는 바람에 환자후송에 어려움을 겪은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구급대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 후 환자의 상태를 살피던 중이었고 이 조울증 남성이 난동을 부린 후 구급차를 탈취한 것.

초를 다루는 화급한 상황에서 차량을 탈취해 가게 되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크게 우려했던 사건이었다.

익산소방서 관계자는 "이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27일부터 구급차에 차량용 원격 시동키를 설치하게 됐다"면서 "이번 원격 시동키 설치로 구급대원이 차량 탈취에 대한 걱정없이 구급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법법은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군산시, 친환경 전기자동차 추가 보급 시행

군산시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에 총 20대의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대상자 선정을 주춤해 진행했으나, 하반기에는 자침에 의거 원활한 보급을 위해 결격 사유가 없는 신청자에 한해 자동차 출고·등록 순으로 총 20대를 민간에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최대 1,800만원~1,449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8월 29일) 이전 군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기업·법인·단체 등으로 개인(세대)·기업·법인·단체 당 1대를 보급한다.

보급차종은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



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차량으로 환경부에서 고시한 승용전기자동차로 한정된다.

사업희망자는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상담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달 3일부터 12일까지 군산시 환경정책과(☎45-3383)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산=김정훈기자

군산고용위기지원센터,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박남준)에서는 구직활동을 하는 지역 구직자에게 면접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자의 면접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개별면접이나 센터에서 운영하는 동행·실면접 프로그램 참여 시 정장대여, 사진 촬영비, 교통비 등의 소요비용을 1회당 3만원 상당의 군산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군산 고용위기지역 내 구직자 중 중복지역 사업체 면접 대

상자로, 지원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로 면접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면접비 지원 사업 희망자는 채용공고문, 면접비 지원신청서, 면접 참여 증명서류 등을 구비해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gunsanjh.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450-1305)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